

“문재인 정부 성공 지지” vs “제3지대 출범 기대”

4·15 총선을 80일 가량 앞둔 광주·전남지역 설민심은 여야간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제3지대 신당 출범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정치권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정치권에 복귀하면서 호남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한 제3지대 신당 출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했다. 하지만 제3지대 정당 출범 가능성에 지역민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송갑석(광주 서갑) 광주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 등이 흔들림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제3지대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을) 대표는 “호남 정치권이 경쟁구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설민심이었다”며 “분열해 있는 호남 정치권에 실망하며 통합을 서둘러 경쟁구도를 만들어보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요구였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미워서 민주당 이야기를 하지만 3세력이 합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설 연휴 광주에서 만난 분들의 얘기였다”며 제3지대 신당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같은 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정부·여당이 불만은 크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지역민들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혀주고 제대로 된 제3지대(중도실용정당)의 출범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정배(광주 서을) 의원은 “개혁 야당들의 분열로 다시 호남이 일당독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호남의 낙후를 해



마스크 쓰고 귀경길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27일 오전 광주송정역에는 고향에서 가족, 친지 등과 함께 설연휴를 보낸 귀경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행 기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지역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여야간 해석 엇갈려

‘경제 활성화’ 한목소리... 안철수, 야권연대 변수 주목

송 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과 광주·전남지역 야당 현역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세력 통합은 언급 자체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며 “4년 전 국민의당을 지지한데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전남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이 믿음직스럽다. 문재인 정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얻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의 광주 방문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심이 결집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손준주(화순·나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라도 정권이라는 생각에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이 많다. 일부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현 정권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민주당에 비해 지지를 바꿀만큼 대안 정당으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결합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 호남정치의 경쟁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영일(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제3지대 신당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었다. 대안신당이 통합신당의 출발점에 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면서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면서 야권통합의 지지도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은 “신당에 대한 기대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대야당의 견제와 타협을 위해 중세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 여파 때문인지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은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야권이 통합되고 반드시 신당이 출현해야 한다”면서 “안철수 전 의원과 만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이성적 사고로 국민과 지역민이 바라는 것을 파악하고 대안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시·전남도 “우한폐렴 막아라” 총력

방역만 가동·매뉴얼 교육 등 비상근무체계 전환 감시 강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순천에서 우한폐렴 의심환자 A씨(57·여)의 인플루엔자 해당 검체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왔고, 환자는 귀가 조치됐다.

우한폐렴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남도는 6개 팀 28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함과 동시에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긴급 방역대책상황점검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한 선별 진료소 운영, 격리시설 및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확보, 국립목포검역소와 연계한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지정 등에 나서고 있다.

중국 여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지자체도 중국여행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광주시는 우한폐렴 확산 차단을 위해 28일 오전 9시 30분 이용섭 시장 주재로 5개 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설 연휴 기간 5개 구청 보건소장과 실무자들을 불러 각각 2차례 회의를 열고 우한폐렴 매뉴얼 숙지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기간 중국 입국자가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난 17일부터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한 5개팀 37명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환자발생 및 조치, 역학조사,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등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양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한전공대 31일 법인설립 인가서 한전, 600억원 가량 재산 출연

한전은 한전공대(가칭) 법인설립과 관련, 600억원 가량의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다.

27일 한전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오는 31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인가하면 오는 5월까지 600억원 가량의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인설립 인가가 이뤄지면 3주 내에 법인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기로 돼 있다”며 “기재부·산업부와 협의해 한전공대 설립 총사업비 6,200억원(잠정) 중 1단계로 600억원 가량을 출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재산 출연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도시공사, 4개 핵심사업 추진 5면
설 연휴 ‘집앞이 쓰레기장’ 눈살 6면

모두가 주목하는 그곳,
학동 삼익세라믹, 평화맨션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습니다!

무등산
+
초역세권

대단지
프리미엄

전세대
남향위주
4-베이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

주택홍보관 오픈기념 경품 이벤트

EVENT 01 오픈 기념 3일간 사은품 증정
대상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품 라면 5개입 기간 매일 선착순 200명

EVENT 02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경품 행사
대상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상품 가전제품/생필품 추첨 2월 1일, 2일 / 15시

1. 추첨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경품들은 상품등급 시정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품 당첨은 1인 1건에 한하며, 중복 당첨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경품 추첨시 추첨 현황에 의하여 한하여 지급됩니다.

84㎡A,B,C / 121㎡
총 920세대(예정)

문의. **225-0011**
062)

시행 (가칭) 학동센터럴시티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주)동원벨리시움

시공예행사 **S**쌍용건설
자금관리 **KT**국제자산신탁

1월 31일 주택홍보관 OPEN(예정)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